



코아드 스피드 도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산업용 자동문 업체

(스피드 도어)

160kg 넘는 산업용 자동문 제조부터 설치, 사후관리까지

창업 2년 만에 100만달러수출탑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이 고객



이대훈 코아드 대표가 공장에 설치한 산업용 스피드도어를 설명하고 있다. 코아드 제공

코아드는 자동문 제조부터 설치, 사후관리까지 모두 해주는 자동문 전문기업이다. 이대훈 코아드 대표는 2014년 코아드를 설립했다. 설립 이유는 단순했다. 자동문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해주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제조사와 시공업체가 달라 설치 후 문제가 생기면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몇 해 지나면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고 창업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에 공급하는 코아드 자동문은 전량 경기 화성 공장에서 제조한다. 이렇게 생산한 문은 예외 없이 전원 정규직인 설치팀이 설치해준다. 사후관리팀도 모두 정규직이다.

◆2년 만에 100만달러수출탑
코아드를 설립하기 전 이 대표는 정보기술(IT)회사에 다니며 컨트롤러(제어기)를 연구하는 일을 했다. 산업용 자동문(스피드도어)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국산화하는 일에 참여했다. 일반 자동문이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스피드도어의

컨트롤러는 이전까지 전량 수입했다. 코아드 사장실에도 스피드도어가 있다. 그의 기술로 제조한 컨트롤러가 들어갔다. 리모컨만 누르면 폭 1m, 높이 2.5m는 돼 보이는 문이 초속 3m로 열렸다. 그는 "이 문의 무게가 160kg이 넘는다"며 "자동문 사고는 건물 파손은 물론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어기술의 신뢰도가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에서 기술을 몸 익히자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났다고 했다. 세계에서 스피드도어를 제조하는 국가는 6개국밖에 없다는 얘기도 이 대표의 창업욕구를 자극했다. 직장생활 16년 동안 모은 6억원을 밀착으로 2014년 코

아드를 설립했다. 코아드는 일반 자동문보다 앞서 스피드도어를 첫 상품으로 내놨다. 제조, 시공,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첫 번째 자동문 회사가 됐다.

대상대로였다. 국내에 스피드도어를 생산하는 업체(코아드)가 처음 생겨자 영업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찾아왔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까지 고객이 됐다. 코카콜라는 국내 공장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일부 공장에서도 코아드가 제조한 문을 설치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코아드 해외 법인이 있는 곳이었다. 이 대표는 "스피드도어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코아드 해외법인에서는 설치 시공뿐 아

코아드

설립	2014년 10월
위치	경기 화성시
제품	산업용 스피드도어
특징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문 생산부터 설치 및 사후관리를 도맡는 기업

나라 제조도 병행하고 있어 부품 조달 면에서 경쟁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코아드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6년 12월에 100만달러수출탑을 받았다.

◆일반 자동문으로 영역 넓혀
최근에는 TV 광고도 시작했다. 올해부터 사업영역을 스피드도어에서 일반 자동문으로 넓혔다. 업계는 국내 스피드도어 시장 규모를 400억원, 일반 자동문 시장을 3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력과 평판을 기반으로 더 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자신 있다고 했다. 그는 "제조와 시공 등을 각각 다른 업체가 하면 유통단계가 늘어나 최종 가격이 오른다"며 "코아드는 제조부터 시공까지 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사후관리 걱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아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기면도기 하버필립스를 떠올리듯 자동문 하버 코아드가 공식이 되길 바랐다. 코아드의 올해 예상 매출은 140억원이다. 내년 매출 목표는 200억원이다.

창업의 세계가 궁금했다. 그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왜 창업했을까. 실패해도 사는 데 지장은 없을까. 정부 지원을 받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창업전선에 막나선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출연해 직장을 때려치우고 창업한 사람의 솔직한 스토리를. 그가 들려주는 얘기가 매일 사표 쓸 생각을 하는 직장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10년간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오기희 OhY Lab. 대표가 글을 써주기 시작했다. 그는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창업했다. 오 대표의 얘기는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미치는 게 목표다. 다른 이유로 이야기가 끝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10년후 나를 상상할 수 없었다 신사업 TF 해산한 날 창업결심”

나의 창업다이어리

오기희 OhY Lab. 대표



구된 10년 후 모습이 교사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과학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즐겁게 다녔다. 어느날 10년 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누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이 결과를 알고 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끝났다.

물론 책에서 배운 자아실현이란 노력도 했다. 업무 시간을 쪼개 회사에 어울릴 것 같은 신사업 재능을 기획해 건의하고, 신사업을 진행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은 불확실성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중이다. 신사업 TF 해산 후 TF 해산이 결정된 그날 저녁, 10년 전과 똑같은 결정을 했다. 정면돌파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 사업을 내가 직접 해보리라'는 생각으로 사표를 던졌다.

때마침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에 한 번 올라타보기로 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게 있다. 직장생활 10년차인 30대의 근거 없는 패기다. 누군가 그랬다. 해야 할지 말지 고민 될 때는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5년 뒤에 또 필자는 여전히 30대다. 무사히 생존한다면 계속 꿈을 이어가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지금 시작된 '마법의 가을'은 그때도 계속 되고 있을 것 같다.

‘마법의 가을’ 이영도 작가의 첫 작품 <드래곤라이더>에 나오는 표현이다. 사람의 인생 특정 시기를 말한다. 나이가 질 때부터 찾년이 오기 전까지 짧은 기간. 삶의 다른 시기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법의 가을임을 모르고 보낸다. 그리고 몇 년을 깨닫는다. 그때가 마법의 가을이었음을.

‘(직장인) 생활을 그만두고, (갑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담배를 요즘 드는 셈이다. 어쩌면 이 가을이 마법의 계절은 아닐까.

가을은 항상 그런 마법을 부렸던 것 같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것도 11월이었다. OhY LAB.이란 회사를 차려 사업개시일로 신고한 것도 11월이었다.

회사 이름만이나 목표도 거창하다. 놀이라고 표시된 교육 프로그램 대신 진짜 ‘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호모루덴스(놀이는 인간들이 본능에 따라 놀았을 뿐인데 10년, 20년 뒤 생각해 보니 교육이었던 그런 것. 과학 놀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동기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나는 왜 창업했을까' 나도 궁금하다. 생각해 보니 첫 직장에 들어갈 때, 그곳을 그만둘 때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10년 후 모습이었다. 10년 전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부가 싫어서 몸부림쳤다. 꿈

모터 없이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 ‘에어클라라’

동양에스엔티 개발
음이온 바람으로 공기 정화



소개했다. 동양에스엔티는 음이온발생장치의 특허를 출원했다.

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적고 청소도 간단하다. 강 대표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음이온 방출구만 물티슈로 닦아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음이온 효과를 강조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음이온의 위생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에어클라라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그는 "모자나이트 등 광물질을 사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모터 없이 바람을 발생시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가 나왔다. 강정환 동양에스엔티 대표는 "모터 없이 돌아가는 '에어클라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청정기(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이온 바람을 발생시켜 공기청정기 특유의 소음이 나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강 대표는 소개했다. 그는 "관에 감아놓은 텅스텐 코일에 미세한 전류와 음이온을 흘려 모터 없이 음이온 회오리바람을 발생시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4년이 걸렸다.

강 대표는 "공기 중에 퍼진 음이온 바람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바닥으로 가라앉아 주변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IoT 활용한 임산부 체중관리 서비스 인기

GC녹십자헬스케어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자 4만 명 넘어

GC녹십자헬스케어와 현대해상이 함께 내놓은 '임산부 체중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18일 GC녹십자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나온 뒤 매일 이용자가 약 7000명씩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헬스 및 헬안 관리 서비스보다 이용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GC녹십자헬스케어의 설명이다. GC녹십자헬스케어 관계자는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는 임산부의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며 "채혈 등을 해야 하는 다른 IoT 서비스보다 이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IoT 체중계와 전용 스마트 폰 앱(응용프로그램)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면 체중계는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한다. 앱은 이용자 몸무게가 해당 임신 주차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표시한다. 앱은 적정 수준 몸무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GC녹십자헬스케어 서버에 축적된 빅데이터와 자동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량과 식이량을 조언해준다.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몸무게 조절에도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굿텐' 어린이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임신 중 체중만 잘 유지해도 저체중아 출산,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GC녹십자헬스케어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높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GC녹십자헬스케어와 현대해상이 함께 내놓은 '임산부 체중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18일 GC녹십자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나온 뒤 매일 이용자가 약 7000명씩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헬스 및 헬안 관리 서비스보다 이용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GC녹십자헬스케어의 설명이다. GC녹십자헬스케어 관계자는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는 임산부의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며 "채혈 등을 해야 하는 다른 IoT 서비스보다 이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IoT 체중계와 전용 스마트 폰 앱(응용프로그램)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면 체중계는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한다. 앱은 이용자 몸무게가 해당 임신 주차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표시한다. 앱은 적정 수준 몸무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GC녹십자헬스케어 서버에 축적된 빅데이터와 자동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량과 식이량을 조언해준다.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몸무게 조절에도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굿텐' 어린이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임신 중 체중만 잘 유지해도 저체중아 출산,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GC녹십자헬스케어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에 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높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영국에서 온 건조기 '화이트나이트'



영국 건조기 브랜드 화이트나이트(사진)는 대용량(8kg) 전기 의류건조기 19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역회전 건조 방식을 채택해 주름과 염색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세탁물이 일정 수준으로 마르면 자동 센서가 감지해 건조기 작동을 멈춘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건조기보다 15%가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 의류, 셔츠, 다림질 등 6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5만원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산업단지닷컴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 안내]

비싼 공장 팔고 저렴한 공장으로!

원천식품산업단지 ㎡당 90만원대 ☎ 1544-9005	모란 에코그린산업단지 ㎡당 30만원대 ☎ 662-9110
화성 전국산업단지 ㎡당 48만원대 ☎ 366-8060	화성 청남산업단지 ㎡당 72만원대 ☎ 378-5660
평택 풍송2차산업단지 ㎡당 64만원대 ☎ 356-7990	금왕 에코노벨리산업단지 ㎡당 21만원대 ☎ 881-7100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 ㎡당 50만원대 ☎ 668-9001	김해 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당 55만원대 ☎ 311-8009
평택 진원3차산업단지 ㎡당 65만원대 ☎ 663-9008	부산신항 산업단지 ㎡당 71만원대 ☎ 337-9002
평택 송산3차산업단지 ㎡당 35만원대 ☎ 355-7570	

대한민국 NO.1 일자리 창출기업
www.sanupdanji.com

안성 하이랜드입주모집

01 취득세 75% 감면
02 재산세 35% 감면
03 법인세 100% 감면
04 초저금리 대출!

삼성전자·LG전자 기업사저 01
SRT 지체역 인근 02
평택특기개발중심지역 03

대박입지! 잔여땅지 문의?
☎ 668-9001

경부고속도로에서 제일 가까운 산업단지!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위치!